

DMZ박물관 개관 2주년 특별전

“Dream Making Zone 田”-DMZ를 보는 젊은 시선전 ... 11월30일까지

강원도DMZ박물관(관장 전창준)이 개관 2주년을 맞아 지난 1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Dream Making Zone 田 - DMZ를 보는 젊은 시선전’이라는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6·25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22명의 도내 청년 작가들이 비무장지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29점의 작품으로 표현했다.

전쟁의 아픈 흔적과 비무장지대 미래의 꿈을 그려보는 비(悲)와 비(飛) 두 가지 공간으로 구성됐으며, 동부전선에 설치됐던 철조망과 철주를 이용해 만든 설치미술 3점도 함께 선보인다.

특히 11일에는 전시회 개막과 연계해 ‘희망의 DMZ 벽화 그리기’ 체험을 통해 관람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했다.



안용선작 天音(130cm×162cm, 한지에 수묵)

강원도DMZ박물관 관계자는 “올해는 정전협정으로 군사분계선이 설정되어 지 58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비무장지대가 더 이상 비운의

땅이 아니라 생명과 평화를 꿈꾸는 새로운 공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신상’ 기념품 10종 출시

DMZ박물관 뮤지엄샵(기념품관) 오픈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 통일전망대에 위치한 강원도DMZ박물관(관장 전창준)이 한국관광명품협회와 협약을 통해 지난 8일 뮤지엄샵(기념품관)을 새롭게 열어 관람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뮤지엄샵에서는 DMZ 박물관만의 특색을 살려 새로 개발한 기념품 10종 35개와 역대 한국 명품기념품 등을 감상 하면서 구입할 수 있다.

또 주먹밥, 감자떡, 전투식량, 건빵 등 전쟁음식을 직접 체험하는 코너도 마련돼 있다.

특히 DMZ박물관 기념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코너도 있어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추억 거리를 제공한다.

DMZ박물관은 뮤지엄샵을 한국관광명품협회에서 직접운영토록 함으로써 전문성과 차별성을 갖도록 했다. 최광호 기자



DMZ 박물관 뮤지엄샵을 찾은 관광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다.

박숙희·노은숙 여직원조 우승

고성교육지원청

제39회 교육감기 교직원 테니스대회 ... 종합우승 평창교육지원청

제39회 교육감기 교직원 테니스대회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고성종합테니스장을 비롯한 고성지역 3개 테니스장에서 강원도 초·중·고 교직원 1,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교직원의 건강증진과 교육발전을 비롯한 지역교육청간 친선 및 강원교육 가족의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39회째를 맞아 각 지역교육청의 단합과 열정으로 펼쳐진 이번 대회는 기관장 및 학교장, 교감, 초등교사 A·B, 중등교사 A·B, 전문직, 여직원, 일반직, 기능직 등 11개 조별로 나눠 치러졌다.

대회 결과 종합우승은 평창교육지원청, 준우승은 흥천교육지원청, 3위는 강릉교육지원청이 차지했다. 조별 경기에서는 고성교육지원청 박숙희·노은숙조가 여직원조 우승을 차지했다.

고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운동으로 다져진 건강과 삶에 대한 열정을 강원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지역경제활성



제39회 교육감기 교직원 테니스대회 모습.

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대회 결과 수상자 명단이다.

종합성적= 우승 평창교육지원청, 준우승 흥천교육지원청, 3위 강릉교육지원청

조별입상자 명단= △교장조 우승 평창(김진목, 최광순), 준우승 속초(양영(송임규, 김석범) △교감조 우승 춘천(김호택, 김경생), 준우승 도교육청(송원섭, 김용일) △초등 A조 우승 흥천(최승일, 이규용), 준우승 강릉(이석호, 최창렬) △초등 B조 우승 흥천(김정

기, 이용주), 준우승 춘천(오영근, 한진석) △중등 A조 우승 속초(양(박주연, 정웅천), 준우승 태백(오세은, 변홍기) △중등 B조 우승 삼척(김영삼, 문철기), 준우승 흥천(박영철, 김영훈) △여직원조 우승 고성(박숙희, 노은숙), 준우승 삼척(홍경희, 이상명) △전문직 조 우승 도교육청(전기철, 최종석), 준우승 평창(권영식, 이열) △일반직 우승 평창(전상규, 오창원), 준우승 태백(김기정, 최영일) △기능직 우승 원주(박광준, 우풍열), 준우승 철원(차능호, 손건진) 박승근 기자

아동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나의 꿈 나의 미래’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최혜경)는 지난 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공부방 아동을 대상으로 2011년 고성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하는 ‘나의 꿈 나의 미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아동 스스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함은 물론 관계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나의 꿈 나의 미래’ 프로그

램에서는 심리검사 실시와 해석을 통해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개방 및 자기관리 능력의 향상을 통한 인격적 성장을 돕는다.

또 대인관계 기술 및 개인적 관심사와 생활상의 문제에 대한 객관적 검토와 해결을 위한 실천적 행동을 습득하게 된다.

아동센터별로 2회씩 미술치료 및 MBTI(어린이상적)검사의 내용으로 관련 분야 전공강사를 초빙해 진행된다. 수강료는 무료. 박승근 기자